

신앙의 무지개순례



주변으로부터의 화해

퀴어신앙인의
개인적 이야기들



편집인: Kerstin Söderblom,
Martin Franke-Coulbeaut,
Misza Czerniak, Pearl Wong



주변으로부터의 화해

퀴어신앙인의 개인적 이야기들

목차

인사말/올라프 피세이크 트베이트	2
서언/ 커스틴 죄더블룸, 퀴어신학 퀴어성경본문들	3
서언/ 마틴 프랑케 쿨보, 정체성해방-성경읽기와 삶	6
아프리카	
헨드리카 마요라, 인도네시아	36
펠리시아, 가나	8
필린, 싱가포르	38
우체나, 나이지리아	10
여름바다, 대한민국	40
에클레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12
첸 샤오옌, 타이완	42
카샤 재클린 나바게세라, 우간다	14
유럽	
이본, 독일	44
아나 이스터 파두아 프레이리, 브라질	16
쥬딧, 헝가리	46
노아 브라운, 캐나다	18
우치, 폴란드	48
파비오 메네시스, 콜롬비아	20
에바 홀루즈코, 폴란드	50
올 인 살틸로, 멕시코	22
야엘과 야나 야노비치, 러시아	52
준 바렛, 미국	24
한나 메드코, 우크라이나	54
아시아	
크리스티나 비어즐리, 영국	56
이로스 셔, 중국	26
오세아니아	
조셉 양, 중국	28
토니 프랭클린-로스, 뉴질랜드	58
셜리와 벨, 홍콩	30
종교간 이야기들	
스몰 룩, 홍콩	32
막시밀리안 펠트하케, 독일	60
아리스도 곤잘레스, 인도네시아	34
머신 헨드릭스, 남아프리카공화국	62
감사의 글, 메테 바스볼과 가브리엘레 메이어	64

인사말

우리는 에큐메니컬 가족 안에서 이론 이 값비싼 경험들과 성찰들을 공유하기까지, 거기에 들어진 이 공헌들을 환영합니다. 이 모음집은 전 세계 LGBTQ+ 신앙인들의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들과 다른 종교기관들이 더 진지하게 관여해야 하는 일들, 즉 인간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간 경험에 대한 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창조 다양성과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의 의미를 탐색하는 일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학습 과정입니다. 모음집에 수록된 많은 이야기들이 확증하고 있듯이 LGBTQ+사람들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에큐메니컬 가족들이 가야 하는 길은 멀어 보입니다.

우리가 인간정체성과 섹슈얼리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가족, 사회, 신앙공동체에서 안전하며, 환영받고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오슬로(Oslo)는 몇 주전, 연례 프라이드 행진 전야에 발생한 테러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노르웨이같이 자유스러운 나라에서도 많은 퀴어인들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혐오와 배척이 LGBTQ+사람들의 삶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한, 교회는 편안할 수 없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은 '주변으로부터의 선교(Mission from the margins)'를 통해 선교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권력없는 사람에게로,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로, 특권층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로 행해지는 그런 것이 아님을 강조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변으로부터의 화해(Reconciliation from the Margins)' 프로젝트도 단순히, 배제된 LGBTQ+사람들과 그들 가족간 관계 치유의 의미 정도를 서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말해, 더 넓은 공동체와 교회들에게 이르기까지 화해가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와 신앙공동체들이 LGBTQ+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 연민 가득하며 질적으로 풍성한 인도주의적인 측면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오슬로

올라프 피세이크 트베이트(Olav Fykse Tveit)
노르웨이교회 의장주교(Presiding Bishop Church of Norway)



커스틴 죄더블롬 (Kerstin Söderblom)

퀴어신학

퀴어인들은 퀴어의 눈으로 성경과 신학서적을 읽습니다. 성서의 이야기를 그들의 삶에 연결시키기도 하고 삶의 이야기를 성서에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퀴어 심장과 퀴어 마음으로 신학을 하는데 있어, 더 이상의 해명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행동신학(Doing Theology)은 매우 개인적이며 상황적입니다. 신학은 시간과 공간의 산물이자 결코 객관적 산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퀴어인들이 할 때는 큰 문제가 되는 듯합니다. 전통신학자들과 교회는 퀴어신학 작업을 편향되었다고, 틀렸다고 비난합니다.

문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성경해석과 신학해석을 할 때, 남성중심적이며 이성애 중심의 규범적 틀을 옹호했던 남성학자, 남성교수, 남성사제, 남성주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습니다. 그들 모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며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매우 열심히 말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앙을 가진 퀴어인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퀴어인들의 경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변(margin)으로부터 가치있는 전문적 지식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퀴어'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소위 이 '불가능'한 두 가지를 이으려 애쓰는 사람들로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증언집에 담긴 이야기를 쓴 저자들은, 모두가 퀴어인 채로 영적인 집(spiritual home)을 찾고자 하는 그 '화해'를 위해, 그들이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들을 들려줄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지배문화나 지배종교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독자의) 마음과 지평을 넓혀 줍니다. 좀 달리 말하자면, 그들은 전통적 가치와 배치되는 모든 것에, 다르게 보이는 낯선 모든 존재들을 향해 벽을 쌓느라, 일상 생활에서 소외의 위기에 처한 신앙공동체에 변혁적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퀴어인들은 “퀴어(Queer)”라는 용어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으려 수십년 넘게 고군분투해왔습니다. 원래 퀴어라는 말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와 간성인(LGBTI+)들을 비웃고 차별하는 욕설이었습니만 이제 그들은, 20세기 80, 90년대에 경멸적으로 사용된 이 용어를 의미있는 자원으로 변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퀴어’라는 이 용어는, 이성애 규범적 범주 또는 이분법적 젠더정체성 중심의 섹슈얼리티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랑스런 자기서술을 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의 저자들은 현재 진행중인 퀴어신학 작업의 주체들입니다. 증언에 담긴 이야기들은 이성애중심 규범이나 성적지향성을 지닌 사람들이나, 이원론적 젠더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손에 성경을 든 채로, 신앙공동체 안에서 조롱, 증오, 신체적 또는 심리적 폭력과 배제를 행하고,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 폭력과 배제를 당한 존재들의 일상생활 경험들이 이야기들 가운데 담겨있습니다. 퀴어 신앙인들은 억압적 신학, 그 근원에 대하여 비판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존중과 급진적 포용을 지향합니다.

다채롭고 다양한 증언들은 섹슈얼리티와 젠더정체성, 경계와 규범을 넘어 소위 자명한 개념들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몇몇 학자들이 말하듯, 그들은 그것을 “퀴어”하며(they queer it), 신학의 새로운 전기와 지평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퀴어 성경 본문들

성경해석에 대한 퀴어 접근방식은 성적 다양성(sexual diversity)과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더 이상 방어적으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이미 성경안에 주어진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에 속한 것이며 모든 것이 훌륭하게 지어졌습니다. 성구들과 관련해서, 논쟁중심에 등장하는 몇 안되는 동성애 반대구절들, 소위 ‘클로버 본문들 (clobber texts), (레8:22, 20:13, 신23:17, 롬1:18-32, 고전6:9-10, 딤후1:9-10)이 가지는 의미는 없습니다. 이 본문들은 주로 컬트 매매춘, 소아성애, 기혼 남성간 동성접촉을 행하던 고대 가나안과 그리스 로마 상황에서 행해지던 종교 신념들과 구별하기 위해 저작된 본문들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몇 안되는 성경구절을 21세기 LGBTI+ 사람들의 삶의 정황에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성경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지닌 특별한 존재로(창1:27참조) 여기는 것입니다. 출신, 피부색, 나이, 신체능력, 성정체성과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부연하자면, 다양한 섹슈얼리티와 젠더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사랑의 이중계명(막12:29, 마 22:34-40, 10:25-28)” 안에 동등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에, 사람 간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존중과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꼭 그만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비이성애 규범적 흔적을 찾는 것은 성경본문을 퀴어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논 바이너리(non-binary, 역사설명: 하나님의 형상을 여성과 남성 둘로만 구분하여 표현하려 하지 않는 것) 하나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이성애규범적 범주와 젠더 정체성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 성서의 인물들도 그런 제한을 너머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이성애규범적 주석전통이 드러나고, 다른 가능한 해석들이 제시됩니다. 사회정치, 역사, 문화, 언어학적 해석전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퀴어학자들은 문학적 공백과 여백을 사용하여 성경본문이 지닌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발견하고 드러냅니다. 퀴어 관점을 포함하기 위해 성경구절 사이사이 문맥을 읽고 비판적으로 다시-강의하기(re-lectures)를 장려합니다.

나아가 퀴어신학은 동성애혐오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적대감들이 인종차별, 성차별, 반유대주의, 식민주의, 연령차별, 반장애(anti-disability)주의 등과 같은, 다른 측면의 불의한 지점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연구합니다. 사람들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교회와 신앙공동체의 권력과 불평등 구조를 적절하게 설명해 내려면 이런 다중적 체계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소책자의 저자들은 자신의 퀴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런 복잡한 요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특별한 관점을 제공하는 기여자들입니다. 그들은 의심과 믿음, 희망과 두려움에 대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각기 다른 대륙, 국적, 피부색, 문화와 사회정치적 맥락, 다양한 종교 교단처럼 다른 이슈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분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다면, 것처럼 적대적 환경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존해 왔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며, 긍정적이며 포괄적인 방식으로 모두를 위한 사회, 모두를 위한 신앙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지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틴 프랑케 쿨보 (Martin Franke-Coulbeaut)



정체성 해방- 성경읽기와 삶

성 경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지닌 피해의식으로부터 해방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분법적이고 이성애중심으로 규범(사람은 오직 여자와 남자뿐이라든지, 섹스는 오직 반대 성을 가진 개인에만 적합하다는 등)화된 주류사회가 소수 쿼어 구성원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 의식적 결단을 하며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이 소책자에 실린 LGBTI+ 신자들의 증언은, 신앙공동체에 이미 확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메시지에 대항하면서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을 어떻게 발달시켜 왔는지 보여줍니다. 카샤 재클린 나바가세라(Kasha Jacqueline Nabagasera)는 우간다에서 레즈비언을 배제하는 “잘못 해석된 교리”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로스 셔(Eros shaw)와 조셉 양(Joseph Yang)은 게이신앙인으로 살려면, 먼저 무지개공동체(Rainbow Community)에서 서로 지지하며 살았어야 한다고 보고합니다. 정체성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커밍아웃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홍콩의 벨(Bell)과 셜리(Shirley), 폴란드의 우치(Uschi)와 같은 양성애자들은, 개방된 사회에서라도, 배재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찾는 게이와 레즈비언보다는 보통 더 큰 타격을 입었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푸아의 헨드리카 마요라(Hendrika Mayora), 홍콩의 스몰 룩(Small Luk), 독일의 이본(Ivon)처럼 트랜스 젠더들과 간성인들 경우, 커밍아웃과 전환과정에 있어 롤 모델을 찾기에 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도움이 됩니다.

싱가폴의 펄린(Pauline)은 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커밍 아웃과정에서 신앙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데 힘이 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캄캄한 시간동안, 나를 지킨 한 가지는 내 영혼 안에 깃든 깊은 인식이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와 별문제가 없이 관찮게 느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설명하기 어려운 평화와 확신이 내 마음과 영혼에 넘쳤습니다”라 말합니다. 결국 변한 것 한 가지는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거부감(rejection)이 더 이상 그리 두렵지 않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커밍아웃 과정이 전 세계 모든 문화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만이 자기수용(self-acceptance)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인식 역시 중요합니다. 종교간 연대에서 인도네시아의 트랜스젠더 남성인 아마르 알피카(Amar Alfikar)와 남아공의 무신 헨드릭스(Muhsin Hendricks)는 이맘으로서 이슬람의 경험을, 독일에 거주하는 미국인 게이 랍비 막스 펠트하케(Max Feldhake)는 유대교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에게 그러하듯 이분들 개인이야기를 출판하는 일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힘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신앙이야기가 LGBTI+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수성을 가진 사람들, 자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존중감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소수자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이런 점에서 다름이와 달라”라는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른 시대, 다른 상황, 다른 문화 속,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발전을 격려합니다. 성경은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본(Ivon)이 표현하듯, 성경은 “깊은 대화구조”로 “그 자체로 반(反) 근본주의적”입니다. 다른 신앙의 맥락과 마찬가지로, 일상과 성경이 서로를 해석하여 다양한 성소수자와 정체성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다른 젠더정체성이나 섹슈얼리티를 가진 사람들을 더 가치롭게 여기는 성경 기록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본문 속 다양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 판본들(decisive editions)에는 추방자, 약자의 삶과 희망이 빛나고 있으며 자유, 존엄, 존중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닌 희망의 능력과 다양한 이미지는 하나님의 다양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이성애중심 규범하 젠더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정체화할 수 없습니다.

이 책자에 개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들은 이성애중심의 규범적 사고와 근본주의의 규범을 넘어 희망과 화해의 비전, 그리고 모두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창출하는데 기여한 분들입니다.

펠리시아 (Felicia), 가나



“나는 할머니 집에서 한번도 평화롭지 못했 습니다”

나는 나의 섹슈얼리티, 신앙, 하나님 사이, 이 관계에 꽤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동성애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서, 다른 그 어떤 것 보다 큰 처벌이 따른다고 믿게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내 성장기 큰 두려움으로 자리잡았고, 때문에 나는 지난 수년간 표현컨대 “대인관계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커가며 여성에게 감정이 일고, 끌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큰 벌이 무서워 공지에 처한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죄의식 속에 아무 말없이 그냥 앉아 있었고, 주일학교 선생님 말이 떠오를 때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입교를 하게 되었고 대예배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학교 가르침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나를 괴롭혔고, 그로 인해 교회활동에 참여키는커녕 여전히 성찬도 못 받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여성을 향한 내 감정과 끌림은 계속

커갔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가는 것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그 시간 교회 근처 해변가에 있는 성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교회에 있으리라 생각했기에, 나는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해변에서 진득하게 기다리다가, 가족이 집으로 돌아갈 때 합류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후에 나는 할머니 댁으로 이사했습니다. 교회 모임에 참여했지만, 혐오와 온갖 저주로 가득 찬 말들이 오갔고, 내가 다니던 교회와 다를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항상 온 가족을 기독교 방식으로 양육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애쓰신 할머니에게 갖가지 핑계를 대며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했고, 가족들과는 다른 존재로 여겼습니다. 가족들과 늘 거리를 두어 나 스스로 고립시켰고, 그 즈음 가족들은 내 섹슈얼리티에 관해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나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고, 목사님 앞에 앉으라 하고는 내 안에 사탄을 쫓아내라 부탁했습니다. 그런 온갖 상담을 받았지만 나의 감정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암송하며 하나님께 드린 유일한 기도문은 나를 바꾸시고, 받을 그 큰 벌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난 할머니 집에서 한번도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날 쳐다볼 때마다 온갖 모욕과 욕을 퍼부었습니다. 아침이면 나날이 더 크게 소리 소리지르는 바람에 이웃에 사는 사람들 모두 내 섹슈얼리티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 나와 관련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는 매우 초라합니다. 그걸 든든하게 할 그 어떤 교회도, 기도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몇몇 LGBT 기관과 모임들에 참여하기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힘을 받아 가며 점점 내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되리라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가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과거 내가 겪은 같은 두려움에 날 빼지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기도하며, 성경도 더 자주 읽으며,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체나 (Uchenna), 나이지리아



“내 섹슈얼리티가 비정상이거나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적 없습니다”

나 엄격한 가톨릭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교리문답 내용도 썩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홉 살에는 첫 영성체 후보자가, 11살에는 입교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열심을 다했던 시절에도 언제나 난 소년들에게 끌렸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감정을 과감하게 표현해 왔는데, 대가 없이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학업성취도가 높아 신앙공동체나 가족들에게는 인정받았지만, 주변 동료에게는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전과 성공회 예배를 좋아해서 언제나 신성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강력한 끌림으로 예전이나 성례전 진행을 돕는 ‘제단 기사단

(Alter Knights)’에 합류했었습니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톨릭 은사그룹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기독교 목회자가 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시절 소동과 고모라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내 섹슈얼리티가 비정상적이거나,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설교자는 동성애자들이 지옥에서 어떻게 썩어져 갈 것인지를 단호히도 말했습니다. 동성애라는 용어도 생소했습니다. 그 때, 나는 혼란스러웠고 감정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진리를 쫓고 내가 처한 현실과 믿음 사이의 화해를 추구하려 성공회 교회를 떠나 오순절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나의 섹슈얼리티가 타당하다는 확신을 절실하게 원했지만, 얻을 수 있던 것은 저주 밖에 없었습니다. 섹슈얼리티를 바꾸고 성윤리에 관한 전통관점을 따르려, 짝긴 했어도 상위 교육기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성관계를 해 보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의 동성애 지향성은 분명했습니다. 어느 순간, 여자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나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영적 연결감과 내 섹슈얼리티에 관한 정당성을 추구했던 나는 기독교 복음사가 음악목회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그 해는 바로 나이지리아 동성결혼 금지법이 통과된 때였는데, 이 변화로 인해 내가 적극 활동한 그룹이 속했던 신앙 공동체들 안에서, 공격적인 반-LGBTI 캠페인에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성가에 열심이었던 나는 이 그룹을 떠날 수 없었고, 수년간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들의 기도를 견뎌야 했습니다.

성적 취향을 태생적인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든 달리 해보려, 모든 노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바꿀 수는 없었기에, 나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 LGBTI인권증진을 위해 일하는 활동 단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를 거쳐, 자기수용의 여정을 시작한 동료 교육가로, 자원봉사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화해의 여정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늘 충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섹슈얼리티로 인해 내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실재가 수용되기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더 많은 대화로 결국 포용과 긍정에 다다르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에클레시아 (Ecclesia),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재, 나는 행복한 결혼생활 중입니다”

성 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영성과 조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나의 여정은 배움과 좌절의 과정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복합적 여정이었습니다.

요한네스버그(Johannesburg) 오순절 신앙배경의 가정에서 태어난 나에게 신앙은 늘 중요했습니다.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시기, 가족이나 교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성애 관계에 적응하려 노력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성적 지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신앙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레즈비언이 될 수 없다는 단호한 말도 들었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입장은, 교회를 떠날 것을 강요하는, 나에 대한 거절 메시지로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고통과 상실은 너무 컸습니다.

몇 년이 지나,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임을 알았기에, 새로운 헌신을 했습니다. 당시 공동체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밀로 하고 살거나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거절당하는 공포와 고통을 멈추기 위해, 지지그룹에 참여도 하고 상담도 받으며 순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수 년 동안은 탈동성애 사역에 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려 내가 누구인가를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들 중 어느 것도 내 성적 지향성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수받은 목회(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부정의 기간동안, 감리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도 안수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소명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많은 탐구를 하면서 훨씬 포괄적 성경읽기와 해석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 사랑과 용납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로 지으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침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나는 회중에게 저의 결혼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지와 행복을 빌어주는 그들의 격려에 압도되었습니다. 내가 아닌 채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나인 채로 거부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동성의 사람과 결혼하고픈 나의 바람때문에 결국 나는 감리교회(MCSA, Methodist Church of South Africa) 사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결혼 생활에 커다란 스트레스를 주어 결혼생활을 마치는 아픈 결정을 하게도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문제를 다시 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 여정을 가족과 나눌 수 있었고, 우리 관계에 새로운 관점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감리교회(MCSA)는 2020년 10월에 동성 커플을 완전히 포함하는 것으로 교회법을 수정했습니다. 현재 나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1995년에 남아공 케이프타운(Cape Town)에 설립된 신앙기반의 비영리 민간단체 ‘아이에이엠(IAM, Inclusive and Affirming Ministries)’을 이끌고 있습니다.

카샤 재클린 나바게세라

(Kasha Jacqueline Nabagesera),
우간다



“모두의 평등권을 위한 내 몫의 투쟁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내 이름은 카샤 재클린 나바게세라입니다. 1980년 4월 12일에 우간다 캄팔라에서 두 아이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레즈비언이며 개신교 신앙 전통속에 태어난 종교인입니다.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그 법에 저촉된 사람은 누구나 종신형을 받는 나라에서, 레즈비언 여성임을 공개하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학교로부터 수없이 쫓겨나는데 지쳐, 대학시절 어린 나이에 실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개방성으로 인해 대학 졸업 년도에도 퇴학당할 위기에도 처했었습니다.

14 카샤 재클린 나바게세라 (KASHA JACQUELINE NABAGESERA)

나의 섹슈얼리티를 숨기지 않았던 터라 신체적, 언어적, 종교적 괴롭힘을 포함해 잊기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행하는 혐오설교로 인해, 생애 한 시점에 나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모든 교단을 망라하여 종교지도자들은 전국에 혐오를 확산시켰고, 그 때문에 나는 종교에 관련한 모든 것을 몹시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태도가 실천 행동에 매우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나의 믿음과 섹슈얼리티를 화해하고자 했습니다. 억압자에게서 도망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이 우리를 이해하도록 돕고 교리해석의 오류를 멈추도록 그들과 교류할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우간다는 매우 종교적인 나라여서 종교지도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사람들이 따르는데, 이것이(억압자로부터 도망하는 것) 내가 싸워 온 자유와 평등의 성취에 매우 큰 장애물이 됨을 알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서서히 교회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나의 신앙수련을 돌이키는 길을 찾는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LGBT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몇몇 종교지도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들도 일어서기 위해, LGBT커뮤니티 지지를 당당하게 소리내는 다른 사람들처럼 큰 어려움에 맞서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지역사회 사람들의 신앙과 섹슈얼리티 일치를 위한 상담공간에서, 우리는 LGBT친화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몇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도 시작했지만, 속도도 느리고 공개적으로 할 수 없어 힘들기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전 대주교,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같은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지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 일이 정당함을 알리는 큰 명분이 됩니다. 이 땅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모두의 평등권을 위해, 모든 종교적, 사회적 커뮤니티안에서 완전한 포괄성(full inclusion)이 이루어 지도록 내 몫의 투쟁을 계속 해 갈 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우간다

15

아나 이스터 파두아 프레이리 목사

(Rev. Dr. Ana Ester Pádua Freire),
브라질



“사람의 몸과 마음에 가 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 하나님의 시

이 글은 나의 고백입니다. 이 글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에게 나타나고 그의 삶에
게시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는 레즈비언 성직자로서,
신앙과 섹슈얼리티 간의 화해를 이룬 퀴어 신학자로서 이 글을 씁니다.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기 전, 나는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겐 아픔이었습니다. 연애관계를 힘들게 마치고서야 교회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로요?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내 섹슈얼리티
문제로 쫓겨났었습니다. 탈 레즈비언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새 오순절 교회(neo-
Pentecostal community)일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사는 삶은
내 온전한 정신을 앗아갔습니다. 레즈비언 정체성은 나의 온 존재에 드러나는데,

어떻게 나 자신의 온전성을 교회 문 밖에 둔 채로 교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세당한 채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취급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에 관한 개념들이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
무엇인가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웠고, 솔직히 말해 성경도 그리웠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동안 멘토의 가르침에 따라 나, 하나님, 성경의
관계에 대해 깊이 발달시켰습니다. 하지만 나를 정죄하고,
신앙공동체로부터, 너무도 사랑했던 목사님으로부터, 목회를 하고자
한 꿈으로부터 나를 갈라놓은 성경을 어찌 펼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원했던 오직 한가지는 사랑과 수용을 찾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동성애에 대한) 정죄, 영원한 죽음, 심판을 말하는 성경을 읽는데, 내
시간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정신을 온전히 지키려고 나는 이 기간동안 성경 텍스트를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신성한 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글들은
내게 소중했고, 나의 안에서 거룩 해졌습니다. 그 글들은 하나님을
내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루벤 알브스(Rubem Alves)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려고 한동안 신학서적을 읽는 대신 시를 읽었습니다”
라고 지혜로이 말했습니다. 시가 나를 구했습니다! 시를 읽는 매순간
예수의 복음, 그 넘쳐나는 사랑의 서사들을 만나는 듯했습니다.
갈망이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네요. 얼굴에 입맞추는 바람한줄기,
피어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꽃송이, 불안을 잊게 하는 시 한
수, 이런 단순한 것들이 비존재(absence)의 존재화(becoming a
presence)를 허용합니다. 오랜 동안, 입을 열어 하나님께 말할 때면,
“갈망”을 말씀드리기도 하면서 “시”를 말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브라질의 시인 코라 코랄리나(Cora Coralina)는 “인생이 너무
짧은 지, 긴 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견디는 그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압니다”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덧붙인다면, 우리가 사람들 몸에 가 닿지
않는다면, 우리가 견디는 어떤 것도 소용없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faith)과 열망(desire)이 화해(reconciliation)하는 가운데,
타자의 몸 곧, 타인의 성육신을 인식하는 터치만이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17

노아 브라운 (Noah Brown), 캐나다



“교인들과 놀라운 대화를 나눴어요”-화해 교량이 된 직조 (TAPESTRY)예술

나의 청소년기 퀴어 흑인 경험들을 해체하면서 2017년 여름, 많은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자각된 퀴어성은 새로웠으며, 세대간 트라우마가 주는 짐은 하루하루 일상생활에 그 자체로 끝없이 나타났습니다. 그 해 초, 타고가던 버스에서 두 흑인 소년이 나를 향해 동성애 혐오발언을 내뱉고, 내 외모를 일일이 골라 지적하며 비웃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들이 나와 같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내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공유한 존재란 걸 믿을 수 없었지만,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사람에게 모욕하고 공개적으로 쏘아 낸 폭언에는 무엇인가 투사되어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 당시까지 나는 내 섹슈얼리티를 받아들이지 못한 때였는데, 돌이켜 보니 그 애들은 나조차도 모르는 뭔가를 내 안에서 봤던 것이라 깨닫게 됩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 생겨난 많은 분노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내 예술에 담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내 작품들은 타피스트리(직조) 시리즈, 도자기 조각, 산업디자인제품, 사진들입니다. 작품 컬렉션을 완성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부룩스(Brookes) 노예선’을 1.2X4.8 미터 크기의 타피스트리 작품으로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은 나의 학교에서 전체 타피스트리를 건조 혼합섬유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당시 학교는 수리를 하느라 건물을 폐쇄했었습니다. 나는 넓은 창작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가 토론토에 있는 론세스밸리 연합교회(Roncesvalles United Church)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교회의 앤 하인즈(Ann Hines) 목사님이 내 계획을 경청하고 두 팔 벌려 공동체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나를 교회 지하로 데려갔습니다. 천장이 굉장히 높은 방이었고, 거기에는 어린이용 연극무대도 있고, 빈티지 체육관의 흔적이 마루바닥에 남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완벽한 스튜디오 공간이었습니다.

머무는 동안 교회성도들과 놀라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치유센터, 글로벌 자선의료단체, 급식소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은 내 이웃과 그 너머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나는 그 공간을 안전하게 느꼈고, 교회공동체와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켜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인즈 목사님이 교회지하실로 내려와 다음 예배에서 혹시 회중들에게 말 할 관심이 있는지를 내게 물었습니다. 내 삶의 여정을 말하고 그간의 과정을 나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날이 되자 예배는, 앉아 있는 교인들에게 보이도록 복도를 따라, 타피스트리 작품을 들고 내려오는 공동체 성원들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하인즈 목사님은 내 작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고, 이 작품들이 교회에 왜 중요한 지도 열정을 다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는 주로 백인 청중들인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을 보이며 흑인 퀴어경험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심과 겸허함으로 들었고, 또 과거 자신이 행했던 행동들을 문제시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날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은 예배 후 청중가운데 나이드 퀴어들과 토론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동성애혐오 환경에서도 성숙해지는 그들의 정체성과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경험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이런 토론은 내 자신의 외상경험들과 그 경험들이 어떻게 끊임없이 반복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파비오 메네시스 (Fabio Meneses), 콜롬비아



“교회는 게이인 나를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1980년 보고타(Bogota)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독서증진을 도모하는 촉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동기, 청소년기에 가족들을 따라 유명한 콜롬비아 오순절 교회에 다녔고 나중에는 새 오순절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시기부터 나는 남자가 좋았습니다. 다녔던 교회들은 동성애를 끔찍한 죄로 가르쳤기에 여러 해 동안 나의 취향을 억누르며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변하려고, 동성애를 치료하겠다고 약속대로 하나하나 가르침대로 따랐었습니다. 그 가르침 중에는 금식, 기도, 성구암송 같은 전통적인 영성훈련도 있었고, 다양한 유사과학(pseudo-scientific)요법들도 있었습니다.

덧붙여, 나는 기독교 지원그룹(미국의 탈-동성애 사역 방법론에 기반한)의 일원이었기도 했습니다. 그 모임은 동성에게 끌려 사는 것을 일종의 질병으로 여겨야 한다고 가르쳤고 우리는 그리 배웠습니다. 남성에게 끌리는 것을 절대 그만둘 수 없었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번은, 이 그룹에 속한 참여자와 성적 만남을 가졌고, 그로 인해 일하던 직위에서 쫓겨났습니다. 다른 지도자들 앞에서 공개사과 하라 내게 요구했습니다. 나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했고, 그 모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 자살 생각도 하고, 죄책감, 슬픔, 괴로움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나 역시 영화 ‘바비를 위한 기도(Prayer for Bobby)’의 주인공처럼 될 수도 있었지만, 신의 개입으로 고맙게도 폭풍속 삶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2013년 10월, 일 하던 중, 내 나이 서른 셋에 나를 게이로 인정하고,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2014년 8월 나는 가족, 친구,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페이스북(Facebook)에 공유된 글을 통해, 공개적으로 벽장에서 벗어나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커밍아웃 한 나를 부모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하려 노력했던 나의 시도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커밍아웃을 행복(어쩔 수 없는)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나의 성적 지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커밍아웃을 한 후에 교회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지 않고, 비난하는 그 기관에서 뭔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2년만에 다른 사람들과 모여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나는 포용하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찾을 수 없었지만, LGBTI 사람을 위한 종교간 단체를 발견하여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파트너를 만났고, 그는 보고타(Bogota)에 있는 콜롬비아 감리교회에 나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 교회는 성적으로 다양한 신자들을 포용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내 파트너, 존 보티아 미란다(Jhon Botia Miranda)는 교회의 목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나는 집사입니다.

오늘날, 나는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 없는 동성애자이며, 기독교인으로 완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LGBTI 자녀들을 정죄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다양한 성별, 성정체성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올인 살틸로 (All-in Saltillo), 멕시코



올인살틸로 (ALL-IN SALTILLO) 공동체를 대표하는 이야기

‘이’테 인플라마테 몸니아(Ite Inflammate Onmia)’는 북부 멕시코 청년 LGBTQ+ 가톨릭 공동체 ‘올인살틸로(All-in Saltillo)’의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의 뜻은 “가서 모두에게 모든 것에 빛을 비추라”는 예수회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전쟁의 눈물이 아닌, 일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담은 노래로 여겨 우리의 슬로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하나님은 동성애를 싫어하신다”라는 생각이나 이와 유사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선하심으로 깨우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반증할 공동체 구성의 기회를 보았습니다.

점차 이 모임은 ‘LGBT+커뮤니티’의 LGBT청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믿음, 공동체, 형성(formation), 봉사’라는 기치 아래 성장해 갔습니다. 모임에서 각 구성원 개인 정체성의 중요성을 짚긴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므로 이 모임에 들어오는 모두를 환대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배제와 무시로 닫혀 있던 문을 열었습니다.

진실은 마침내, 하나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음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먼저 공동체로서의 일치를 이루었고, 그 다음엔 멕시코 가톨릭 무지개 네트워크, ‘레드 가톨릭 아르고이리스(Red Catolica Arcoiris)’에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이 단체의 초 신생회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미사, 회합,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임에서는, 우리가 받은 축복과 섹슈얼리티, 그것들이 종교와 갈등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생활 나눔’ 시간에는 우리의 문제들과 감정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시간들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감탄하며 웃음과 눈물, 피드백을 나누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올인’은 가족이 되었고, 투쟁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말들 때문에 교회에서 분리된 사람들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키가 크든 작든, 가늘든 그렇지 않든, 이성애자이든 게이이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활기를 찾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12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전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의 폭력, 혐오, 배제와 분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소생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나누어야 합니다.

준 바렛 (June Barrett), 미국



크리스찬, 퀴어, 그리고 이주민

나는 57세 퀴어이며, 자메이카 이주민이므로 미국에서 노동권 활동가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고 얼마 후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키운 이모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내가 가도록 했습니다. 어린 소녀 시절, 나는 침례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집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사랑이란 말을 교회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교회는 나의 반석이었고, 찬양은 내가 두려울 때 평화를 주었습니다. 틴에이저가 되면서 동성에게 끌린다는 것을 알았지만 침묵했습니다. 교회를 떠나 버림받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자메이카에서 동성애는 금기시되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동네에서 누구는 남색이고, 누구는 정신나간 남자이며 그래서 그들 모두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어쩌다 듣기도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교회 한 장로님께 상담을 부탁했습니다. 나의 성 정체성에 대해 말했는데 그녀는 내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들이 내 안의 동성에 마귀를 쫓아내려는 동안 나는 교회바닥에 누워있었습니다.

상처받았고, 혼란스러웠으며,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매주 교회출석을 계속했고 여성모임과 성경공부도 참여했습니다. 교회의 한 자매와 유대감을 형성하며,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향한 제 감정이 비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친구관계를 그만 두진 않았지만 내가 지옥에 가게 될 것을 끝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교회에서 그 친구와 내가 연인사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결국 교회 가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1994년 10월, 베르벨 바르텐부르크 포터(Bärbel Wartenburg-Potter) 박사님이 독일 바트 볼(Bad Boll)에서 열리는 국제 레즈비언 회의에 나를 초대했습니다. 그 때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레즈비언 크리스찬들을 만났습니다. 그 때까지는 퀴어로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었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겔른하우젠(Gelnhausen)에도 갔었고 그곳에서 우리 경험들을 더 나눌 수 있었고 동맹을 구축하고,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서로 어떻게 지원할지, 그 전략들을 모색했습니다. 힘을 얻은 느낌으로 자메이카로 돌아왔고, 바트 볼에서 만난 여성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편지로 오랫동안 내 정신을 유지하고 연결감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1998년에는 레즈비언, 모든 성 정체성의 사람, 게이를 위한 자메이카 포럼(J-FLAG, Jamaica Forum for Lesbian, All-Sexual, and Gays)이 설립되었습니다. 안전망이 없었던 관계로, 우리는 이 포럼을 환영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조직이 생겨난 것입니다.

2001년에는 내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녀가 나를 직장에서 아웃팅해 버렸습니다. 나는 자메이카를 떠나야 했고, 그 해 12월 21일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동성애혐오, 트랜스젠더혐오, 만연해 있는 인종차별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메이카보다는 안전하다 느낍니다.

나는 모두를 환영하는 침례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노동 조직가로 이민자, 퀴어,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언제나 지니고 다닙니다. 나 자신을 그것들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청년 퀴어 크리스찬들에게 두 정체성 모두 괜찮다고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이 퀴어를 용납 못한다 거나, 당신이 악마에게 사로잡혔다는 그런 거짓 서사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미국

25

이로스 셔 (Eros Shaw), 중국



“교회가 이 모든 청년들을 진정으로 포용하는 시간은 언제나 올까요?”

나는 열 세 살 고교시절에 처음으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9년에 일하러 베이징으로 이사했고 응이오 분 린 (Ngeo Boon Lin) 목사님이 주최한 나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교회(MCC)소속 목사님이었고 중국인 성소수자 크리스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분입니다. 그 모임을 마치고 다양한 교단에서 온 게이 크리스찬들이 바에 모였습니다. 나는 그 날 참석자 중 유일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우리는 모임 이름을 ‘중국 무지개 증인모임(CRWF, China Rainbow Witness Fellowship)’라고 정했습니다. 무지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표징이며 성소수자 프라이드의 상징이기도 하니깐요. 함께 나눈 내용은 성서, 신학, 애큐메니즘, 교회사로부터 발달심리와 AIDS 예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2013년 7월에 신학도 자오 베이(Xiao Bei) 형제가 가톨릭 성소수자를 모으기 위해 ‘중국가톨릭 무지개공동체(CCRC, China Catholic Rainbow Community)’라는 QQ 채팅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회 성탄절 파티에 내 절친을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이 ‘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자 그녀는 ‘네가 게이일리 없어’라며 소리쳤습니다. 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주제를 언급하지 못했지만, 친구는 가끔 내 성적 취향이 바뀔 수 있길 바라며, 찾은 글들을 내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 모임과 더 깊어지며 내 남자친구를 포함하여 성소수자 크리스찬들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남자친구와 내 관계를 부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이 친구는 내 커밍아웃 이야기에 가장 의미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친구는 이성애자이며, 이런 모임에 개인적으로 연결되기 전까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해, 우리에게 대해 매우 비판적인 교회가, 상하이에서 열린 성탄절 축하모임 사진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극단적으로 공격했고 그 분쟁이 멈추길 바라며, 우리는 지역 교구를 떠났습니다. 이로써 중국 천주교에서 첫 번째이자 대규모 성소수자 크리스찬 모임이 고작 4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CCRC가 계속 존재한 것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비신자 수업과 묵주기도 그룹을 운영합니다. 성소수자 가톨릭 신자들이 이런 모임에서 의아해하는 경험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소수의 사제, 신학생, 수도자매들이 있습니다.

나는 2015년 로마에서 열린 GNRC(Global Network of Rainbow Catholics) 창립총회에 CRWF와 CCRC를 대표해서 참여했습니다. 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는 바티칸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중국 가톨릭 동성애자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모님을 향한 큰 사랑을 지닌 가톨릭 동성애자들의 신앙에 감동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어머니 교회가 이 모든 청년들을 진정으로 포용하게 될 때는 언제나 올까요? 나는 *May Your Lips Kiss Mine-Chinese Tongzhi(LGBT+)Catholics Tales*라는 이야기책을 편집하게 되어 기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도 많이 받았습니다. 언젠가는 교회가 동성애를 완전히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좌절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조셉 양 (Joseph Yang), 중국



“성적지향성으로 고군분투하는 동성애 크리스찬을 지지하는 하나님선교를 위한 나의 소명”

나는 장로교 전통을 따르는 중국 푸지안(Fujian)성 샤멘(Xiamen)의 전통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1998년 Xiamen Xunsiding 교회라는 가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와 성경공부에 참여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아기였을 때 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느 날 나는 잘못해서 아버지 팔에서 떨어졌고 기절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부모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만약 제가 살아남으면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아버지는 2002년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까지 이 사실을 내게 비밀로 해 왔습니다.

실업계 고교를 졸업한 뒤 나는 중국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삶은 편했지만 열정이 부족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 신학센터(Theological Centre for Asia)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도 난 여전히 벽장안에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커밍아웃 한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 응이오 분 린(Ngeo Boon Lin) 목사님이 큰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점차로, 내 자신과 내 섹슈얼리티를 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싱가폴과 홍콩에서 7년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중국 동성애자 기독교동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연구를 시작한 것은 충 차이 신학대학원(Divinity School of Chung Chi)에서였습니다. 졸업 후에는 무급 전임목회자로 시작하여 8년동안 중국에서 성소수자 그룹을 섬겼습니다.

2010년에 첫 QQ(중국에서 인기있는 라이브 채팅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인터넷 라이브 채팅 그룹을 시작했습니다(현재 CTK 공개 채팅 그룹으로 알려진). 2011년 말까지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합류했습니다. 성적지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크리스찬을 위해 사역을 계속하고 확장하라는 소명을 느꼈습니다.

2012년은 내게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시아먼(Xiamen)에 있는 몇 명의 성소수 크리스찬과 더불어, 중국의 게이 목사님이 이끄는 최초의 CTK 펠로우쉽 설립을 도왔습니다. 그 시간은 다른 성소수 크리스찬들과 함께 일어나, 서로를 격려하고 긍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 역시 중국의 LGBT 크리스찬에게 헌정된 온라인 포럼을 통해 온라인 기도네트워크, 토론과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안식년 후 본토 중국에서 동성애 크리스찬을 섬기도록 더 깊은 차원의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준비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 스스로 다음의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복음적 관점에서 LGBT 크리스찬 사역의 주제를 탐구하고 싶습니다. 둘째, 중국 LGBT 크리스찬들에게 보다 효과적 목회를 목적으로, 교회개혁과 관계적 사역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쿼어 신학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싶고 중국본토 신학교육의 미래를 위한 영적지평을 넓히고 싶습니다.

나의 섹슈얼리티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 상상을 넘어, 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성적 지향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동성애 크리스찬들을 지원하는 하나님 사명에 대한 내 소명을 계속 상상할 것입니다.

셜리와 벨 (Shirley and Bell), 홍콩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당신이 여성이 아니었으면 사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여성이라,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반 서구화되고, 매우 가부장적 중국도시인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 양성애 커플입니다. 우리 이야기는 25년 전, 섹스는 금기이며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은 금시초문이고, 동성관계는 못마땅하게 여겼던 여 기숙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데이트를 한 지 두 달 만에, 나는 사회 종교적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11년이 흐른 뒤, 우리는 기숙사 축하 음악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 작은 방 안 무대 위, 피아노 연주를 하는 그녀를 보면서 나는 갑자기 스포트 라이트 두개가 우리 각각을 비추는 듯 느꼈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고, 그녀에게 위에 적은 글을 썼습니다. 나의 뒤늦은 솔직함과 그녀의 담대함 덕에 잘려 나갔던 우리의 사랑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피난처로 찾아 들어갔던 보수적 성소수자 크리스찬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양성애를 ‘문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즈비언 커플이라는 “안전한” 정체성으로 물러나 레즈비언 커플에게 기대되는 부치와 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도 아니었고, 평등한 관계를 바라는 우리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젠더 역할을 연기하는 그 기저에는 불안, 두려움, 자기 회의(self-doubt)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관계를 옥죄고 숨막히게 하는 자기 영속(self-perpetuating)과 자기만족(self-fulfilling)적 씨앗을 뿌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LGBT 커플들은 자신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가족들과 대부분의 그런 교회를 감당해 가며 살아가는데, 롤모델이 되는 분들이나 전문적 조언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없었다면, 그 모든 과정이 불가능하고 힘든 싸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친절한 몇몇 상담가를 만날 수 있었고, 수 년 후에 우리의 진정한 자아(selves)들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양성애 커플로 살아가는 것은 두배로 힘겹습니다. 젠더 역할을 하지 않게 된 것 만으로, 진정한 자아로 살고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계성을 포용하지만, 다르고 더 ‘윤리적(moralistic)’ ‘기준(standard)’에는 반대했습니다. 이 내적 위선과 우리의 진정한 지향성에 대한 ‘갑작스러운’ 깨달음은 우리 둘 모두를 더 깊은 자기 증오로 몰아갔습니다. 내적 투쟁의 기간 후에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 충분한 용기를 얻었고 우리가 같은 이슈로 싸우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화해를 통해 우리는 우울증에서 벗어나 더 강하고 든든한 관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섹슈얼리티, 정체성, 기대들, 그리고 초월적 사랑의 힘을 탐구하고 실험하고 경험합니다. 우리는 25년지기 지인으로 또 13년의 헌신적 관계를 통해 우리의 신앙, 결혼 개념, 여전히 사랑하지만 보수적인 가족들, 그리고 게이 지배적(gay-dominated) 신앙공동체를 붙들고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양성애자/범성애자 크리스찬 커플로서 결혼했습니다. 삶은 계속 도전적입니다. 거슬러 사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앞으로도 나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진정성, 정직성, 진실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선택으로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몰 룩 (Small Luk), 홍콩

“네가 나의 간성 어린이들을 돌봐다오!”



나는 홍콩에서 태어난 간성(intersex), 스몰 룩입니다. 홍콩태생으로 간성 위치를 처음 공개적으로 인정한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들이 “모호한 성별”이라고 부르는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들은 나를 생식기 이상증 남성으로 결정했습니다. 가족도 내 성을 그렇게 정한 것은 내가 첫아이였고, 중국인 가족에게 남자인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덟 살에서 열 세 살 사이에 스무 번도 넘는 생식기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린시절의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열 세 살 때 다른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그 후 그들이 내 몸 안에서 자궁과 질을 찾았으나 아직 덜 발달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사 권유로 암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남성부분의

전부를 제거했는데, 그건 또 다른 힘든 수술이었습니다. 현재 나는 간성 여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병원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기수술 후에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고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한 목사님이 병동의 내 침대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었고 성경도 주었습니다. 심한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난 밤마다 신약성경을 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위대한 주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의 목숨을 버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기도했고 주님께 내 삶을 드렸습니다.

2010년, 남성부분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마치고 일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만개한 벚꽃을 보았을 때, “여기 한 송이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구나. 나는 내 일을 시작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자녀를 돌보아라” 나는 이 아이들이 누구냐고 하나님께 여쭙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간성 아이들”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처음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고, 사람들이 내가 간성임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1년이 지난 2011년 3월 이른 아침에 나는 꿈에서 간성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다시 소명을 느꼈습니다. 간성 아동들에게 성기 재건 수술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절 부르셨다는 증거로 구름 낀 날에 정말 아름다운 노을을 보여 주십시오” 했습니다. 놀랍게도,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일몰을 보았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시어 당신의 일을 이루소서!”

홍콩과 아시아의 간성 인구를 위한 옹호활동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인도와 대만은 12세 이하 간성 아동들의 성기 재건 수술을 금지했습니다. 사회와 정부는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더 자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대중 인식을 증진하고, 간성 인권 촉진과 강제 성기 수술의 종식을 옹호하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 크리스찬 단체들이 여전히 간성은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성의 보호와 권리를 위한 하나님 사역을 이루기 위해 갈 길이 아직 멀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홍콩

33

아리스도 곤잘레스 (Arisdo Gonzalez), 인도네시아



“자신을 보고,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 나의 순례

나의 순례란 내가 인간으로 지나온 과정입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한 소년의 미소에 관심이 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학교에 갈 때마다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는 늘 한 남자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죠. 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시씨, 패곳(sissy, faggot)” 같은 언어 폭력을 당했었습니다. 하늘이 캄캄하게 느껴졌고 내겐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 해에, 선생님에게 내 상황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선생님에게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동네에 있는 한 대형교회에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을 뵈었고, 그 분에게도 난 남성에게 마음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성 관계에 관한 성경 몇 구절을 주었습니다. 기쁨을 부으며, 내 안에 있는 악령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당일에는 회복된 기분도 들었지만, 다음날에는 전과 같아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남성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카르타 신학대학(JTS, Jakarta Theological Seminary)에 입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신학과 인간 사고의 구성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JTS의 한 교수님을 뵈게 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를 LGBTQI+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신학교에서 모든 학생은 캠퍼스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있었는데, 나는 2016년에 LGBTQI+ 국제컨퍼런스 활동을 선택했습니다. 여전히 내 자신이 게이라는 것을 거부하면서, 두려웠으나 LGBTQI+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한 게이 목사님을 만나서 토론했습니다. 그는 내게 “당신 자신을 보고, 당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JTS도서관에서 섹슈얼리티와 퀴어에 관한 책들을 모두 빌렸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남성적이라고 이해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경험속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퀴어이십니다.

1년 후, 우리는 현장실습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HIV/AIDS 이슈를 다루는 조직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성애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좀 불편했는데 그 이유는 나도 그들 중 일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나는 종교들과의 투쟁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준 폴(Paul)을 만났습니다. 그는 내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약간의 위안을 느끼게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커밍아웃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충격을 받았고 그들은 내가 잘 못 인도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리스도이며 남성을 좋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나의 커밍아웃이 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때때로 우울했고 내가 했던 일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자살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종교, 섹슈얼리티와 퀴어 신학 수업을 통해 내 정체성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비판적 사고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내 자신이 게이임을 나타내는 데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헨드리카 마요라 (Hendrika Mayora), 인도네시아



잘 못 놓여짐

나는 파푸아의 매우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헨드릭 빅터(Hendrik Victor)로 태어났습니다. 유소년기 대부분의 자유시간을 교회활동으로 보냈습니다.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던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침내, 어린시절에 신부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가족들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나를 기초신학교(the lower seminary)에 보내는데 동의했습니다.

2012년에는 욕야카르타(Yogyakarta)에 있는 고등 신학교에서 교단원(Frater)으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나 자신을 여성으로 여기는 느낌을 상사에게 고백하자 그는 나를 처벌했습니다. 수도원을 떠나야 했고 빈곤서약 안에서 진정한 독신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는 자주 홀린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고, 헨드릭 그에게 내 삶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먼 곳으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을 떠난 뒤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서 파푸아 메라우케(Merauke)에서 HIV/AIDS 예방활동가로 일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개인 교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HIV 바이러스를 피하는 법에 대해 알리는 건강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그 때가

처음으로 “그래, 헨드릭, 너는 여자야”라고 스스로에게 고백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거의 매일 밤 친구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정체성이 사라졌을 때 겪던 그 힘든 현기증도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17년 말, 메라우케에서 이사할 결심을 했고, 다른 도시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허나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는 욕야(Yogya)로 가서 고아원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HIV/AIDS 예방교육에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전에 욕야카르타 트랜스 여성 그룹을 이끌던 마마 룰리(Mama Rully)를 만났습니다. 모임을 마친 후, 나는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녀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그러라 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아주 작았지만 나는 진짜 집을 찾은 듯 느껴졌습니다. 많은 것들을 그녀에게 나누었고, 나의 젠더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마 룰리에게 그녀가 입은 것처럼 저도 입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헨드리카 빅토리아 마요라(Hendrika Victoria Mayora)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진한 피부때문에 동료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속상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도로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며 인정받으려 노력했습니다. 나는 욕야카르타 트랜스 커뮤니티에서 존경과 내가 위치할 나의 공간을 얻었습니다.

친구의 조언으로 한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시가의 새벽(Dawn of Sikka)”은 트랜스 여성 친구들을 위한 기숙시설로 설립되었습니다. 회원들은 플로레스(Flores)섬 동부 전역에서 온 트랜스 여성들입니다.

최근에 나는 플로레스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협의체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전에 없었던 트랜스 젠더의 첫 승리였습니다.

펠린 (Pauline), 싱가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왜 나를 바꾸지 않으셨나요?”

나는 싱가포르에서 유일하게 진보적이고 포용적인 회중교회 ‘프리 커뮤니티 교회(Free Community Church)’의 임원목사들 중 한 명입니다. 자라기는 감리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고 레즈비언입니까?”라는 이 질문에 ‘네’라 대답하면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또 어떤 사람은 놀람과 불신에 차서 바라봅니다. 그러면 나는 가끔 눈을 반짝이며 “나도 목사입니다”라며 그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나는 많은 것(many things)이며, 또한 게이입니다. 게이가 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자신과 가족들에게 어려운 그런 길을 택하겠습니까?) 나는 제가 단순단계 그 이상이었음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하나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과 영성은 항상 중요했으며, 열 세 살 때부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쨌든 나는 복음주의 크리스찬으로 “결출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소년기 어떤 의식들이 생겨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후, 열 아홉 살에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영적인 생활을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고 내 자신에게 말했고, 대학에서 크리스찬 모임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4년간 선교사로 지냈고 보수적인 성경 대학(Bible College)에 다녔습니다.

그 모든 시간동안 나는 여전히 성소수자로 남아 있었고, 기도하고, 금식도하고, 하나님께 간청했음에도 하나님은 왜 나를 바꾸지 않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가족과, 특히 엄마와 꽤 가까운 사이여서, 나의 성적 지향성을 제외하고는 보통 대부분의 것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들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섹슈얼리티에 대해 혼자 씨름했습니다. 이 두가지 모두는 부인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사실들이었고, 이 둘을 화해시킬 방식이 없다는 신념이 거의 나를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관계의 이별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을 때 마침내 머리에 떠오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상처였고, 신뢰할 만한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친구에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말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암울했던 시간동안, 나를 버티게 한 유일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함이 좋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확신이 내 마음과 영혼에 넘쳐났습니다. 이 평화를 경험하면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첫 걸음을 뚫 수 있었습니다. 풀타임으로 신학수업을 시작했을 때, 내가 성경과 신학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나는 그 구절들의 실제 번역과 역사적 상황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부모님에게 커밍아웃 할 용기를 가졌을 때, 부모님은 너무 힘들어 하셨고 엄마는 울었습니다. 이것이 거의 20년 전 일입니다. 그래도 내가 커밍아웃 하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을 느낍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사랑하실까 궁금해하며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드립니다.

싱가폴

39

여름바다 (Summer Sea), 대한민국



“이제 나는, 나의 어떤 것도 버리지 않기로 했다”

나는 여전히 나의 ‘성 정체성’ 사이에서 선명하지 않은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무의미한 것이라 생각은 하면서도 선명하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기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나의 정체화 과정에는 나를 이루는 여러 부분, 이를테면 나고 자란 과정을 비롯해 과거와 현재를 이루는 사람들의 시선, 욕구와 상처들이 얹혀 있어서 그 실타래를 푸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평생을 지니고 온 내 몸의 감각과 마음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읽고 정리하는 지극히 당연한 길이 이리저리 꼬여버린 탓을 나의 원가족과 신앙공동체에 돌리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고 단순하게 말해버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이 글이 원가족에게 조금 똑바로 된 이야기를 전하는 데 쓰일지도 모른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실은 영영 내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 나는 당신들이 원했던 가짜가 아니었다고, 그때 당신의 말들이 틀린 것이었다고, 여기에 쓰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과 감각들이 쉬이 무시될 마음이 아니었다고, 그 크고 작은 것들이 여태 기억에 남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1999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아주 독실하고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게이 이야기라면 헛구역질을 했던 아버지와, 연인이 아닌 동성친구와 결혼하겠다 농담만 해도 악은 입에도 담지 말라 했던 어머니가 있는 집에서 말입니다. 엄격하고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나의 섹슈얼리티는 여러 가지 폭력과 결부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가 인간으로서 마땅하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과 욕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제당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동성만 아니라 이성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뜻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음란한 영이 틈타서 일어나는 쓸데없는 사건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심찮게 음란한 영이 틈타 있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내 기억으로 처음 동성을 좋아한 것은 만 나이 13살 때였다. 그때 이후로 네 명을 더 사랑했고, 무겁지 않은 호감이나 성애적인 감각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중 어머니에게 드러난 것은 중학교 시절 두 번과 대학 시절 한 번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내 성적 지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미리부터 알았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나는 오랫동안 나름의 근거를 대며 나의 경험들을 나와 분리된 것이나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성애자로 있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어느 면에서는 나를 지키는 길이었겠지만 그래도 과거 어느 순간의 어머니에게 돌아가 말하는 상상을 해 봅니다. “내가 그 친구를 많이 좋아한 것은 동성애가 나오는 소설책을 보고 가볍게 흥내를 냈던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젊은 남자 선생님이 학교에 없어서 대체재로 그 여자 선생님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 언니를 좋아한 것은 내 안에 들어온 영이 아니라 내가 맞아요.” 그 외에도 나의 많은 것들에 대해, 언젠가는 편히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는 나를 위협하는 가족과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느슨하게나마 바이섹슈얼과 젠더퀴어라는 이름을 붙인 채로, 한때 버려졌던 과거와 단절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기독교 퀴어운동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운동에 참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꽤 자주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아프지만, 그와 동시에 꽤 자주 즐겁고, 자유롭고, 소중한 순간들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게 상처를 낸 어머니의 하나님과는 다른, 더 넓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중입니다.

나는 아직 살만합니다. ‘퀴어’라는 세계가 내게 준 위안은, 무언가 모호한 채로 두서없이 혼란된 스스로의 상태를 긍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다고, 무언가 딱 떨어지게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게 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무엇도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 무겁고 고되더라도 나라는 존재가 쌓아온 꾸러미를 끌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안고 가는 무엇이든 썩 괜찮았으면 한합니다. 너도나도,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만 더 괜찮았으면 합니다.

첸 샤오옌
(Chen Xiaoen),
타이완



주변화는 화해를 놓았습니다. 어떻게 성소수자로 존재하는 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나는 1980년생으로, 독실한 복음주의 가정에서 성장했고, 타이완 장로교회(PCT, Presbyterian Church in Taiwan)에 다녔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건 기독교교육 때문도 아니며, 거의 교회기반 활동만을 하며 살았던 내 청소년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독실한) 신앙을 가진 것은

나의 이상함과 외로움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역시, 내가 첫 사랑을 시작하기도 전에 관계성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도 경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나 다른 크리스찬들이 동성 관계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나로 하여금 관계의 유형과 형태에 대해 오랫동안 열심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과 애정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정과 낭만적 사랑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일까? 헌신적 관계 또는 평생파트너를 무엇으로 표시할까? 결혼은 무엇일까? 종교와 법의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 어떻게 조정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목회사역과 신학연구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나의 응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연구에 대한 열정도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좋거나 신학적, 성경 연구를 좋아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는 나같은 성소수자와 우리 커뮤니티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 이 말씀들에 대해 다른 시대 하나님 백성의 다른 응답들을 해석하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 필요를 느낍니다.

주류 교단 안에 목회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는 상황은, 하나님의 현존속에서 생의 다른 단계를 지나는 사람들의 여정에 같이 걸어갈 역할에 나 자신을 준비토록 나를 강제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질문들에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 년간의 추구는 나의 열망을 분명하게 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와 지지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비참하고 부패한 날들을 통해 좌절해 계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나는 내 지난 경험에 새 삶을 가져다준 새로운 의미와 관점들로 인해 중생이라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신학교에 속해 있어서 완전히 커밍아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진정성 하나로 교사와 학생들과 더불어 상호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과 예수에 기반한 신앙으로, 미래를 비추는 진리의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일치로 서로를 품게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본 (Ivon),
독일



“성경은 그 자체로 반 근본주의적입니다” -간성과 하나님의 자녀

어릴 적 나는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이야기들은 나에게 말도 해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퀴어임을 깨달았을 때, 성경은 나를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 졌습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이성애만 수용합니다. 마침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의 젠더/성 정체성 가운데 찢긴 채로 내 자신과 싸웠습니다.

신학공부를 시작하면서 해방신학/페미니스트 신학/퀴어 신학과 성경읽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나는 다시 성경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억압받고 주변화된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피조물들 모두가 자유롭고 안녕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반 근본주의적이라는 것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대화 구조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 자신의 경험들을 더하도록 초대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공유하게 하려 우리를 부릅니다. 이를 이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자신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허용하는, LGBTIQ를 긍정하는 교회에서 일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쥬딧 (Judit),
헝가리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증언

나는 39세의 쥬딧이고, 고향은 부타페스트(Budapest)입니다. 직계가족은 기독교를 믿지 않았으나 저는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말마다 나는 언니와 외할머니 댁에서 지냈고, 개혁파 전통의 칼빈주의 교회에 다녔습니다. 17세에 입교하고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내게 교회는 너무 편협하고 세상과 분리된 곳으로 느껴졌었고, 청소년이 된 나는 세상을 더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소녀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도 그 나이 즈음이었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 여성을 위한 라브리즈 레즈비언 협회(Labrisz Lesbian Ass.)에 자원봉사자로 합류하여 이벤트 조직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나는 행동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여전히 신자로서 그 모든 시간을 지내왔지만, 종교적 수행을 할 필요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종교 공동체를 그리워하기 시작했고, 그때가 LGBTQ+ 사람들과 그 동맹자들을 위한 에큐메니칼 크리스찬 그룹인 ‘모자익 커뮤니티(Mozaik Community)’를 찾았을 때였습니다.

2016년에 헝가리 LGBTQ+ 조직인 Háttér Society는 ‘LGBTQ와 크리스찬의 대화’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 LGBTQ 크리스찬 그룹인 ‘유로피언 포럼(European Forum)’ 연례회의에 내가 처음으로 참석하게 된 길이 되었습니다. 난 이 경험을 ‘모든 것이 한 번에 함께 온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각(piece) - 또는 평화(peace) -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포럼에서 우리를 연합하게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피스(piece)와 피스(peace) 역시 나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단스크(Gdansk)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하여 크르지토프 카람사(Krzysztof Charamsa)의 말을 들은 후, 헝가리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커뮤니티에서 한 일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카람사는 ‘커밍아웃’이 어떻게 우리의 저항 행동이 되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각각의 교회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저항 행동이 되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는 말합니다. “나는 부름 받았습니다.” 당시 나는 목사가 되고 싶었고, 아마도 헝가리 최초의 게이 목사였을 것입니다. 헝가리 교회들은 아직 동성애 목사나 신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치적 이유로 정부에서 교회로 인정하지 않은 교회인, 헝가리 복음주의 연합(Hungarian Evangelical Fellowship)이 운영하는 웨슬리 신학교(Wesley Theological College)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또한 목회를 돕는 협력자로 교회를 위해 일했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서 커밍아웃 했습니다. 회중의 목사로서 그녀는 이것을 수용하는 과정에 있지만, 불행히도 아직 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회중들은 환영했지만 나는 우리 교회환경을 “가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나는 회중에게도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작은 변화들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교회와 협력하여 LGBTQ+ 사람들을 언급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정책을 앞세워 특정 사회집단에 대하여 두려움과 소외를 확산시키는 것은 우리 헝가리에서도 겪고 있는 세계전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선언)이 서로를 이해하고 LGBTQIA+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를 더 가까이 인도할 포용(inclusion)의 실천임을 믿습니다. 혐오가 아님을 믿습니다.”

나는 4년차 신학수업 중이며, 내 논문의 가제는 “해방으로서의 퀴어 신학”입니다.

헝가리

47

우치 (Uschi),
폴란드



“나는 양성애- 가시성(BI- VISIBILITY)으로 분투 중입니다.”

나는 폴란드 바르샤바(Warsaw, Poland) 출신의 로마 가톨릭 양성애 여성으로, 15년 이상 동성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고, 교회의 적극적인 활동 교인입니다.

나는 십대 초반부터 주로 청년들이 중심이 된 조직 ‘빛-생명운동 Light-Life Movement (Ruch Światło-Życie),’의 회원으로 교회에 참여했습니다. 돌이켜 볼 때, 그 때는 내 이성애 정체성을 전혀 의문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양성애자로서 커밍아웃 과정을 시작한 것은 이미 어른이 되었을 때였고 이미 많은 생각을 해왔고 확신을 한 때였습니다. 그 결과로, 은혜롭게도 내면에서 격어야 할 동성애/양성애 혐오적 온갖 고통을 모면할 수 있었고, 교회와의 관계만 제외하면 거의 완벽하게 내 자신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부모님의 심한 동성애/양성애 혐오로 고통받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정회원은 아니었지만, 정규활동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나의 성적

생활은 능동적이었습니다. 성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것이 공정하다 느꼈습니다. 교리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동시에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조리한 것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적극적인 수행(practice)으로부터 뒷걸음쳤습니다.

전환점 -그리고 내게는 성령의 활동이라는 분명한 싸인-은 대모(godmother)가 돼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어린이의 부모는 내가 그 역할에 적합한 최고의 사람이라 강조했고, 나는 대녀(goddaughter)에게 가톨릭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안에 더 있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 때는 내가 시간을 길게 잡고, 사랑하며, 교회가 결혼에 관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동성관계에 헌신하며, 내 파트너와 결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나의 신앙과 성적 지향간의 화해적 삶(reconcile living)을 이루려 노력하던 때였습니다. (폴란드는 결혼평등권도, 심지어 시민 파트너십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유효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나의 관계성이 죄가 아니며 모든 것이 완벽히 제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이 내겐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투중인 것은 양성(애) 가시성입니다. 현대의 개방적 사고를 하는 가톨릭 신자들이나 대도시의 지성인들에게는 동성관계의 삶을 상당부분 개방할 수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된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양성애자로 커밍 아웃하는 것은 언제나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동성애자(즉, 전통적 결혼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로 지으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수준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있지만, 다른 선택지 없이 한 여성과 함께하는 내 삶을 나누기로 결정한 것은 거의 이해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동료 가톨릭 신자들에게조차도 그건 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을 시도하고 알아 낼 용기나 에너지도 거의 없습니다.

내가 진실된 나로서, 내 모든 정체성을 개방하면서도 절대적 안전을 느끼는 유일한 곳은 LGBT+ 크리스찬을 위한 폴란드 조직인 ‘신앙과 무지개(Wiarai Tęczą)’입니다. 이 곳에서 나는 정서적 지지도 받고, 내가 가진 의혹들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곳의 환영하는 분위기와 에큐메니칼한 환경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에바 홀루즈코 (Ewa Hołuszko), 폴란드



“나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트랜스 젠더이며
정교회 신자

나는 1950년, 정교회 (Orthodox Christian)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전통과 전례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제 심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다른 교단들을 이끄실 절대자이심을 믿습니다.

성장하며 남자 역할을 하다 보니 내면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심리적 분열도 커졌습니다. 동시에 나는 여성에게 끌렸습니다. 1982년 까지는 폴란드 문헌에 ‘성전환(transsexual)’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었기에, 무슨 문제로 내가 이러는지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강도높은 신체운동으로 싸워 나갔습니다. 나는 가족 문제와 세상의 불의에 민감한 실천적 신자(practicing believer)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거칠고 타협 없는 남자로 보였습니다.

나는 학생들을 지지하는 학교 파업을 공동조직 하고 데모에 참여했던 1968년에 공산주의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에서 강의를 시작한 후에도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1976년 서유럽을 여행하던 중, 나는 내가 정말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은 내 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난 이미 결혼하여 아들도 한 명 있었습니다. 생물학적인 나의 몸을 혐오하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리라 맹세했지만, 내 내면의 목소리는 나 자신에게 여성이라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비밀을 아셨습니다. 고해성사자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권에 저항하는 ‘연대’운동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바르샤바 지부 이사회에 이사였습니다. 숨어 지낸 계엄기간(1981-83)에는, 폴란드 수도에서 가장 큰 지하 반공조직을 공동 건설했습니다. 체포된 후, 투옥되어 심문받았지만 누구도 넘기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1989년 이후 새로운 현실에서, 트랜스 젠더 문제는 더 심화되었습니다. 나는 성전환을 하고 젠더 재규정의 길을 가기 위해 생명을 구하는 결정(life-saving decision)을 내려야 했습니다. 수술 후 나는 모든 과학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론 것들을 잃었습니다. 잘 알려졌던 존재에서 사회의 바닥, 아무 존재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충격의 영향이후, 정교회(Orthodox Church)는 내게 성체성사를 허락했습니다. 일부 사제들은 내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은 두 명의 사제를 나의 고해 사제로 임명했습니다.

서서히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서 나의 역할을 되 찾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폴란드를 위한 나의 기여로 국가 최고의 상을 받았지만 동시에 종종 성전환 혐오 공격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내가 나 자신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감각을 절대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어린시절과 청년기, 보안대로부터 쫓기던 시절, 투옥과 박해시기, 정치적 변혁기, 심지어 종양 질병 후, 내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 나를 구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살하려 결심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떤 죽음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진정 나인 채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야엘과 야나 야노비치

(Yael and Yana Yanovich),
러시아



“우린 처음부터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독립교단 LGBT 크리스찬 모임인 “세상의 빛(Light of the World)”에서 모임과 음악사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야엘(Yael): 나는 보수적인 복음주의 침례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엄마와 모임에 참여했고, 지금은 때때로 야나와 루터교 대성당(Lutheran Cathedral), 그리고 “세상의 빛”에 다닙니다. 나는 열세살에 내 성적 취향을 인식했습니다. 자기수용(self-acceptance)의 여정에서, 이미 ‘세상의 빛’ 일원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법이 동성 커플과 가족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야나(Yana):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나는 20살에 시베리아(Siberia)로 이주하여 거기서 살면서 공부했습니다. 2009년, 모스크바(Moscow)에 있는 ‘생명의 말씀 카리스마 교회(the Word of Life Charismatic Church)’가 조직한 한 성경학교

(Bible School)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때 나는, 나의 신앙과 섹슈얼리티(Sexuality)에 관해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2009년은 유리(Yury)와 내가 LGBT 그룹 ‘세상의 빛’을 조직했던 해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리더(leader)라고 부르지만, 나는 보호자(keeper)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지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다른 LGBT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야엘: 나는 2015년에 LGBT 크리스찬 모임, ‘세상의 빛’을 찾았고, 그 모임의 리더였던 야나(Yana)에게 연락하면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야나와 나는 처음부터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하고 싶다는 암시는 했지만, 그녀가 준비되기까지 기다리고 싶어 진지한 프러포즈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016년에 서로에게 프러포즈를 하고 반지를 교환하며, 신체적 친밀함은 삼가기로 했습니다. 2017년에 결혼할 예정이었으나, 예식을 준비하고 우리의 관계를 더 든든히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하는 유대교 정결예식 미크바(mikvah)를 했는데 이는, 서로를 위해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삶을 정결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야나: 나는 여러가지 이유로 야엘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배려하며 지지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그녀가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LGBT 공동체에서 누구도 교회의 축복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결혼 전에, 야엘과 나는 관계성에 대해 얘기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 결혼식 전에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육체적으로 가까워진 것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신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결혼식

야나: 우리는 2018년, 개신교 암스테르담 가이저스흐라거트 교회(Kerk Amsterdam - Keizersgrachtkerk)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고 사회는 윌리 엘호르스트(Wielie Elhorst)가 보았습니다. 결혼식 준비에 대한 기억들은, 지금 특히 가족들에게 그것을 숨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연약관계로 들어갈 때 함께 하는 하나님의 인증(seal)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사제는 그 관계에 인을 치고, 교회는 증인이 됩니다.

야엘: 나는 야나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부드럽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크고, 이웃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사랑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에 같이 가고 경험들을 나누며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서로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현존하실 때, 그 관계는 거룩함의 특별한 수준으로 고양됩니다.

한나 메드코 (Hanna Medko), 우크라이나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 방식

소련에서 태어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도전적인 일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자신의 뿌리와 전통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엄격하고 지배적이며, 너무나도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외할머니에게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는, 내 시대와 부모의 산물입니다.

54

한나 메드코 (HANNA MEDKO)

나의 학교3학년 말, 제 여동생이 트랙터에 치였습니다. 그 날은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날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당신이 계시다면 동생을 살려야 합니다” 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나는 이제 동생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비해 훨씬 잔인하도록 어려운 것임을 이해합니다.

내가 겪은 두번째 시험은 스무 살 때 의사 잘못으로 제 태중의 아들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몸 속 태아를 수술 (foetus-destroying operation) 받은 후 난 불임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고뇌와 우울증으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마음은 얼음덩어리로 덮인 것만 같았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에는, 엄마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년 후 의사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내가 수술을 받은 지 수 년 후, 체외수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장은 호르몬이 필요하며, 분명히 자연임신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내게 그건 마치 판결과도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7일 후,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놀라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달 후 조산사는 임신을 확인했습니다. 그 해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얼음 껍질이 녹는 것을 느끼며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다시 미소 짓고, 매 순간 즐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을 처음같이 또 마지막같이 그 둘을 동시에 경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적을 간구했었고, 기적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 위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몇 년 후, 딸은 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을 소개하며 “제 이름은 디마(Dima)이고, 게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응답은 “나는 한나예요. 정체성이 그렇다해도 내게 별 다른 상관없어요”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 그가 놀랐다는 정도로 말하는 것은 절제된 표현이긴 합니다. 디마와 딸은, 그들이 이사 갈 때까지 얼마동안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그 시기, 그들이 나와 같이 지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디마가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아, 괜찮은지 걱정이 되어 그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온 디마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 주었습니다. 14살 때 가족으로부터 가출한 이야기며, 그 뒷이야기 모두를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같이 울었고, 아침이 되자 그는 나를 “엄마”로 불러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의사들이 나에게서 빼앗아 간 것을 되돌려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55

크리스티나(티나) 비어즐리 목사 (Rev. Dr. Christina(Tina) Beardsley), 영국



화해할 수 없는 화해?

2017년, 영국국교회 (the Church of England)가 ‘사랑과 신앙안에서의 생활(LLF, Living in Love and Faith)’이라는 이름으로 섹슈얼리티, 젠더, 인간 정체성에 대해 다루고자 하는 했었는데, 나는 2020년 11월 보고를 위해 이 모임에 컨설턴트로 초대되었습니다.

2017년 그보다 16년 앞선2001년에, 내가 보건의료 사제 사역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교회지도력은 나를 소외시켰습니다. 4년이 흐른 2005년에 나의 감독(bishop)은 더 수용적이 되었습니다. 현재 나는 LGBTI+ 사람들에 대하여 나와는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나란히 국교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목표 중 하나는 섹슈얼리티와 젠더 정체성에 대해 상반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56 크리스티나(티나) 비어즐리 목사 (REV. DR. CHRISTINA(TINA) BEARDSLEY)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신념들 중 어떤 것들은 완전히 양립할 수도, 화해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였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믿는 크리스찬과 평등 결혼을 믿는 크리스찬을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을까요? 또는 전환(transition)을 하나님께서 주신 젠더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찬과 그것을 죄라고 믿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겠습니까? 실제로 영국성공회는 어느정도 이런 문제들로 이미 나뉘어 있습니다.

화해할 수 없는 것을 화해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나의 우려는 2019년 1월에 한계에 이르렀고, 양심상 더 이상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직에 도움이 되는 인터뷰를 했고, 떠난 이유에 대한 나의 초기 성찰점들을 ‘교회 타임즈(the Church Times)’에 실었습니다.

교회가 한 기구조직으로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중립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선(line), 위치(position)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국교회는 섹슈얼리티 관점에서 교회 안 동성결혼 축하를 허용하지 않으며, 동성과 결혼하는 성직자를 징계하고, LGBTI+ 사람들을 이등교인처럼 느끼게 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교회가 젠더 정체성과 섹슈얼리티 신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모을 때 그곳에는 평등 보다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LGBTI+ 사람들에게 이러한 토론들은 지적 논쟁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과 우리 삶에 관한 토론입니다. 많은 LGBTI+ 사람들이 더 넓은 사회와 교회 환경과 곳곳에서 그런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점점 더 꺼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내가 LLF ‘협력 그룹(Coordinating Group)’에 합류하기 전에도, 그룹의 어떤 회원이 그 모임의 회원이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대해 반대 신학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내게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나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내게는 하나님이 내신 길이라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유머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나와는 또 다르게 ‘외부자’이기에 친구로 남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임에 합류하기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적어도 개인적 차원에서는 실제로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토니 프랭클린-로스 목사 (Rev. Tony Franklin-Ross), 뉴질랜드



“다양성을 함께 지니게 하는 ‘하이픈(HYPHEN)’ 으로 살기”-퀴어 에큐메니즘에 대한 개인적 증언

다양성을 함께 지니게 하는 -때로는 창의적일 수 있는 긴장속에서- “하이픈”으로 사는 삶을 성찰해 보면, 그런 삶은 마치 야곱이 천사들과 씨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파케하-키위(pakeha-Kiwi), 시스남성-퀴어, 게이-크리스찬, 진보-정통, 안수자-제자, 목사-신학자, 그리고 퀴어-에큐메니스트 등 하이픈으로 연결된

경험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십대에, 학교 친구인 닉(Nick)과 나는 남성에게 끌리는 것을 대해 청소년 지도자에게 상담했었습니다. 닉은 자신의 신앙과 섹슈얼리티를 화해시키려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자살하였습니다. 나는 섹슈얼리티를 포함하여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대안보다는 더 강한 긍정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대학시절에 교회 공동체를 떠났고, 성소수자인 나 자신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게이 공동체도 발견했습니다. 후에, 교회에 다시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고, 어클랜드 커뮤니티 교회(Auckland Community Church)에서 한 가족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의 신학은 LGBTIQ와 이성애 그 다양성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교단으로부터 모였습니다. 그 교회는 누구에겐가는 우선적 신앙공동체로, 또 다른 누구에겐가는 조직된 종교를 떠나거나 재입회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주류 기독교 주변에 존재하는 신앙공동체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중심은 신앙입니다. 매주 행하는 성만찬 예전을 인도하는 성직자와 성도는 다양한 교파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이는, 성경, 전통, 이성, 경험의 신학적 틀, 또한 에큐메니칼에 대한 내열망과 더불어 나를 감리교단의 안수사역자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아오테아로아-뉴질랜드 감리교회(MCNZ, the Methodist Church of Aotearoa-New Zealand)에서 안수교육을 받은 첫 동성애 남성이었고, 2009년에 다른 동성애 남성과 처음으로 같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1990년대에 MCNZ 은 안수사역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쟁으로 들끓었습니다.

2013년 WCC부산에서 총회에 참석했을 때 나는 “생명을 향하여 함께: 변화하는 환경 속 선교와 전도(Together Towards Life: Mission and Evangelism in Changing Landscapes)” 라는 책을 접했습니다. 이 문서의 핵심은 주변으로부터의 선교에 대한 부름이었습니다. 선교는 언제나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있는 사람이, 북반구가 남반구에게, 이성애자가 퀴어에게 행해진 것이라는 기존의 이해에 대한 도전입니다. 강건함을 찾는 주변부 공동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분명한 도전입니다. 환희, 희망, 두려움, 고통, 상처, 삶, 죽음 등 수많은 생생한 경험을 지닌 LGBTI Q+ 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섹슈얼리티라는 렌즈를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모음집인 시편에서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표현이 넘쳐났습니다.

퀴어 주변부에서 겪은 나의 특별한 경험은 퀴어 에큐메니즘을 분명하게 확증합니다. 퀴어신학은 급진적 사랑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사랑이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젠더와 섹슈얼리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 기존의 경계들을 해체합니다. 다름에 대하여 보여야 하는 온전한 태도는, 분열되지 않은 몸(undivided body)으로 살고,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화해 경험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힘은 곧, 하나님이 그 능력을 드러내심에(releasing) 있습니다.

막시밀리안 펠트하케 (Maximilian Feldhake), 독일



신앙의 중심, 관용과 포괄성

32 살의 유대인 랍비인 나는 게이입니다. 미국 아리조나주 피닉스(Phoenix, Arizona)에서 태어나 살다가 2012년에 독일로 이주하여 현재 베를린에서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관용, 포괄성, 개방성은 개혁주의 유대교(Reform Judaism)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처음으로 여성 랍비를 안수한 우리의 운동은 게이와 레즈비언 평신도, 성직자를 허용했던 재건주의자 운동(Reconstructionist Movement)과 같이 한 우리의 운동입니다.

60

막시밀리안 펠트하케 (MAXIMILIAN FELDHAKE)

유대인 공동체에서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에 관한 문제는 내게 어떤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속한 회당의 대표 랍비님은 자랑스러운 레즈비언입니다. 개혁주의 유대인 세계에서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표한다거나 동성애 혐오를 드러내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내게 - 수천 수 만의 진보적 사고를 하는 다른 유대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섹슈얼리티에 관한 이슈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토라(Torah)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데 자주 인용되는 탈무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이방인이 랍비 힐렐(Hillel)에게 요청합니다. 자신이 한 발로 서있을 동안 전체 토라를 가르치는 조건으로 자신을 개종시키라는 요청입니다. 힐렐은 그를 개종시키며 “당신이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체 토라의 가르침이고 나머지는 해설입니다. 이제 가서 그것을 배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실제 이 이야기는 앞 부분 반만 맞습니다. 이방인은 랍비 샴마이(Shammai)에게 자신을 개종시키고 한 발로 서 있을 동안에 전체 토라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샴마이는 그 사람의 요청을 일축하고 건축자용 자(cubit)로 그를 밀어냅니다. 슬프게도, 유대교 신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가진 LGBTQ 유대인에 대한 태도는 힐렐이 보인 태도가 아니라 샴마이 모델입니다. 자신이 더 정통하고 올바른 유대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일종의 그런 사람들이, 그토록 수많은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해하기 어렵고, 양심에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적어도 내 관점에서, LGBTQ 유대인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2021년 유대교 세계 어떤 일정 부분에 여전히 존재하는 동성애 혐오의 수준은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며 랍비인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열려 있는 채로 내 자신과 내 자신이 지닌 가치들에 대해 자랑스러이 여기며 변명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퇴행적이며 편협한 신앙인들은 수없이 많은 종교공동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그들을 돌볼 시간도 인내도 없습니다. 나의 유대교와 랍비직의 중심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교의를 확증하고, 유대인들에게 힘을 더하며, 유대인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독일

61

머신 헨드릭스 (Muhsin Hendricks),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무슬림과 게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느낌은 언제나 내 삶의 주제였습니다. 나약해 보인다고 기피당하고 왼손을 주로 쓴다고, 오른손으로 쓰고 먹으라 강요당했습니다. 나는 보수적인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슬람 회당 모스크(mosque)의 종교지도자 이맘(Imam)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거기 교사였고, 아버지는 영적 치유자였습니다.

내가 다른 소년들과 달랐던 것은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남자들과 하나가 된 척하며 내 진정한 자아(true self)를 숨기고 지냈습니다. 놀림받을 때마다 수용되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런 경험들은 나를 더 깊은 벽장 속으로 몰아넣게 했습니다. 23살에서 29살 사이에는 기대에 부응하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성과 결혼하여 아이 셋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의 영혼이 자유를 갈망하는 순간에, 서로에게 고통만을 주는 결혼관계로부터 떠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의 농장으로 가 석 달 동안 춥고 빈

헛간에서 자며 의식적인 고립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까지 혹은 굶어 죽을 때까지 금식하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 와 은둔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게 되며 거기에 압도되었고, 그 모든 외로움 속에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둔생활로 들어갔던 나의 히즈라(Hijra, 이주)역시 내가 되기 위한 내 영혼의 여정에 필요한 단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음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다가온 도전들을 통해 나의 나 됨을 형성했기에, 언젠가 나 역시 늘 자신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을 의미한다 해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생존 욕구보다 진정성에 대한 갈망이 더 큼니다. 미디어에 초대되어 내 이야기를 말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게이 이맘(Imam)이 벽장에서 나오다”라고 제목을 뽑아 출판되었을 때 나는 그 일로 한 바탕 소란이 일 것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스크(mosque, 회교사원) 교직에서 해고되었고, 신앙 공동체로부터 “비신자(out of the fold)”로 낙인 찍혔습니다. 꾸란은 나의 외로운 세월 속에 동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주 읽었던 포용과 연민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 이슬람교에서 벗어나게 되어 나는 행복합니다.

청년기 많은 시간을 잃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얻은 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성적지향과 그에 따른 어려움들은 내 첫 사랑인 창조주와 더 큰 관계성을 맺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맘 무신 헨드릭스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있는 알 구르바(Al Ghurbaah) 재단의 설립자입니다. 이 곳은 성적지향, 젠더정체성, 신념등으로 소외된 무슬림들이 심리적, 영적,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https://www.al-ghurbaah.org.za/> 를 참조하세요.

남아프리카공화국

63

감사합니다

지난 2년반 동안 많은 분들이 이 ‘주변으로부터의 화해 (Reconciliation from the Margins)’가 나오기까지 참여하였고, 마침내 놀라운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우리는 2019년 제네바에서 열린 한 워크숍에서 아이디어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출판팀을 꾸렸습니다. 이 작업에 공동으로 수고해 주신 Mlsza, Kersitn, Pearl, Martin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팀을 꾸린 후 곧이어 다양한 나라, 종교배경,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진 많은 저자들이 나타났고, 자신들의 증언을 보내주셨습니다. 10 개의 다른 언어로 출판하기 위해 번역인들도 모아야 했습니다. 준비팀은 책의 편집과정을 조정하고, 디자이너 및 인쇄업체와 협상하며, WCC 총회 시간에 맞춰 칼스루에로 운송과 배송이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퀴어신학을 소개한 Kerstin과 Martin 에게 감사드리며, 인사말을 보내주신 WCC전 사무총장 Olav Fykse Tveit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셀 수 없는 시간을 들여 헌신해주신 자원봉사자들이 없었다면 이 출판 작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전 과정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의 깊은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주변으로부터의 화해’를 통해 읽는 분들마다 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감동으로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 참여자들의 노고가 결실을 맺어, 이 출판물이 WCC 총회기간동안 칼스루에와 그 너머에 계신 많은 사람들의 심장과 마음에 가 닿기를 바랍니다.

2022년 7월에

Mette Basboll과 Gabriele Mayer
The Rainbow Pilgrims of Faith coalition의 공동조정인



주변으로부터의 화해

출판: Rainbow Pilgrims of Faith coalition

편집: Kerstin Söderblom, Martin Franke-Coulbeaut, Misza Czerniak, Pearl Wong

저자: All-in Saltillo, Rev. Dr. Ana Ester Pádua Freire, Arisdo Gonzalez, Chen Xiaoen, Rev. Dr. Christina (Tina) Beardsley, Ecclesia, Eros Shaw, Ewa Hofuszkó, Fabio Meneses, Felicia, Hanna Medko, Hendrika Mayora, Ivon, Joseph Yang, Judit, June Barrett, Kasha Jacqueline Nabagesera, Maximilian Feldhake, Muhsin Hendricks, Noah Brown, Pauline, Shirley 와 Bell, Small Luk, Summer Sea, Rev. Tony Franklin-Ross, Uchenna, Uschi, Yael과 Yana Yanovich

인사말: Olav Fykse Tveit 감독

서언: Kerstin Söderblom, Martin Franke-Coulbeaut

번역: Rym Salameh (아랍어); Shirley FY Lam, Amy Phoon, Chris Weiloon Ng (중국어); Michael Clifton (프랑스어); Andreas Raschke, Axel Schwaigert, Barbara Schnoor, Carol Shepherd, Christina Holder, Christine Bandilla, Denise Kehrer, Dennis Wiedemann, Dorothee Holzapfel, Eva Kaderli, Eva Schwendimann, Franz Kaern, Henning Diesenberg, Kerstin Söderblom, Manuela Tokatli, Martin Franke-Coulbeaut, Monika Bertram, Paul Holmes, Priscilla Schwendimann, Roland Weber, Stefanie Bischof, Susanne Birke, Thomas Pöschl (독일어); Amadeo Udampoh (인도네시아어); Hyun Sun Oh (한국어); Rev. Dr. Ana Ester Pádua Freire (포르투갈어); Julie Esse (러시아어); Alejandra Alonso Tak, Gabriel Nuñez Montoya (스페인어)

문학편집: Rima Nasrallah (아랍어); Pearl Wong (중국어); Jim Hodgson, Sadie Hale, Sharon Lee Ellingsen (영어); Etienne Arcq (프랑스어); Axel Schwaigert, Kerstin Söderblom, Monika Bertram (독일어); Olga Gerassimenko (러시아어)

디자인: Alix Chauvet, Wieke Willemsen

레이아웃: Misza Czerniak

협찬과 기증: 이 출판은 ILGA-Europe, Council of World Mission, 그리고 수많은 기관과 개개인의 협찬과 기부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서에 표현된 의견이 이들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SUPPORTED BY
ILGA
EUROPE



© 2022

